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The characteristics of old age preparation of Korean Adults and policy implications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전국의 45~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 및 실태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2%는 노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으며 13.9%만이 노후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수입이 낮고 학력이 낮은 계층, 그리고 연령별로는 50대 초반에서 노후에 대한 걱정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67.6%가 공적연금, 사적연금, 저축 등의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으나, 32.4%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노인 세대의 62.6%는 61세 이후 현업에서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은퇴 이후 '전직과 관련된 일' 또는 '전혀 새로운 일'과 같이 신규 취업을 통한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은 각각 8.0%와 3.1%로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중장년층에서도 1/3은 여전히 경제적 노후준비와 건강준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과 독려를 필요로 함. 특히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 준비정도가 학력, 직업, 소득 등 소위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계층적으로 표적화된 노후준비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20년에 이르면 남자 78.2세, 여자 84.4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중년층의 경우 은퇴 이후에 평균 약 20여년의 시간을, 후 세대들은 더욱 긴 시간을 노년기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짧지 않은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적극적인 노

후준비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모두 의미있는 일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의미 있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증가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노후준비”가 사회적 화두(話頭)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적 노후준비’에 국한된 논의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을 따름이다. 급속한 고령

화 현실에 직면해 가장 기본적이고 급박한 제도의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가는 상황에서, 향후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과제가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이다. 노후준비에 관한 사회적·제도적 인프라의 확충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 및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후준비에 관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에 주는 함의를 찾는데 목적을 두고 전국의 45~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화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남자 505명, 여자 509명으로 총 1,014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이다.

이 509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5~49세가 35.0%, 50~54세 24.0%, 55~59세 23.6%, 60~64세가 17.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35.0%, 고졸이 37.5%이며, 대졸이상이 27.6%로 나타났으며,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10.9%, 100~200만원 미만이 22.4%, 200~300만원이 20.6%, 300~400만원이 19.2%이며, 400~500만원이 10.9%이며, 500만원 이상은 16.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근무직종은 주부가 32.5%로 가장 높았으며, 의회의원·고위임원·관리직은 응답자의 4.7%, 전문가는 4.9%, 기술공 및 준전문가는 5.9%를 비롯하여 사무종사자 6.3%, 서비스 종사자 10.0%, 판매종사자 8.7% 등 모든 직종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비율은 92.0%, 무배우 비율은 8.0%이며, 지역별로는 시 지역 거주자가 86.8%이며, 군 지역이 13.2%로 나타났다.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는 총 1,014명으로 남성이 505명, 여성

구분	비율(N)	구분	비율(N)
성		근무직종	
남	49.8(505)	의회의원, 고위임원, 관리자	4.7(48)
여	50.2(509)	전문가	4.9(50)
연령		기술공 및 준전문가	5.9(60)
45~49세	35.0(355)	사무종사자	6.3(64)
50~54세	24.0(243)	서비스종사자	10.0(101)
55~59세	23.6(239)	판매종사자	8.7(88)
60~64세	17.5(177)	농업	6.6(67)

〈표 1〉 계속

구분	비율(N)	구분	비율(N)
학력 ¹⁾		기능원	3.0(30)
중졸이하	35.0(354)	기계,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2(32)
고졸	37.5(379)	단순노무종사자	7.3(74)
대졸이상	27.6(279)	군인	0.1(1)
가구월수입 ²⁾		주부	32.5(330)
100만원 미만	10.9(107)	기타	0.1(1)
100~200만원미만	22.4(221)	무직	6.7(68)
200~300만원미만	20.6(203)	배우자 유무 ³⁾	
300~400만원미만	19.2(189)	유	92.0(928)
400~500만원미만	10.9(107)	무	8.0(81)
500만원 이상	16.1(159)	지역	
		시	86.8(880)
		군	13.2(134)
계	100.0(1,014)		100.0(1,014)

주: 1) 무응답 2명 제외
2) 무응답 28명 제외
3) 무응답 5명 제외

3.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에 대한 기대와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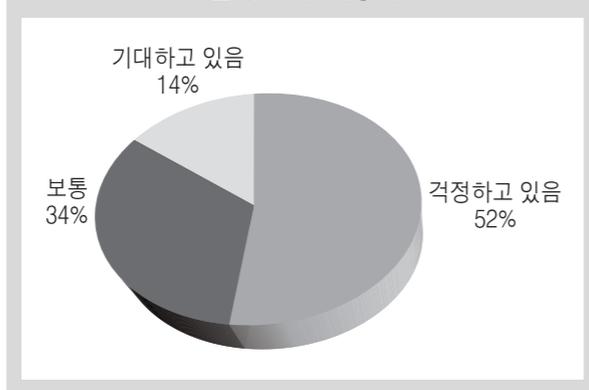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노후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8.3% 포인트 높으며, 특히 여성일수록, 수입이 낮고 학력이 낮은 계층에 속할수록, 그리고 연령별로는 50대 초반에서 노후에 대한 걱정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2.2%는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으며, 13.9%만이 노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대한 걱정 사항은 건강상실에 대한 걱정(40.9%), 노후생

활비용에 대한 걱정(32.2%), 치매·중풍 등 수발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걱정(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년기에 대한 기대와 걱정은 연령대,

그림 1. 노후 걱정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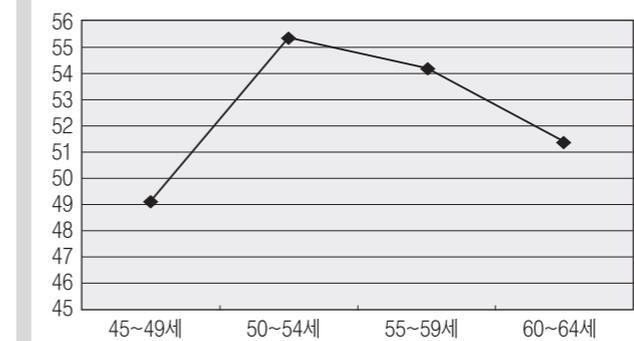
성별과 같이 개인의 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노후 걱정 및 기대수준의 경우, 45~49세는 노후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이 49.1%, 50~54세는 55.4%, 55~59세는 54.2%, 60~64세는 51.4%로 나타나 40대 또는 60대에 비해 50대가 오히려 노후에 대한 걱정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 따라 그 초점은 다소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령, 생활비용에 대한 걱정은 타 연령대보다 45~4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6.9%) 50대의 경우 타 연령대보다 '무위'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50~54세는 8.2%, 55~59세는 8.8%). 60대 이후에는 건강상실, 치매·중풍 등 건강관련 변인이 주요 걱정거리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노후에 대한 기대 및 걱정수준과 관심의 초점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분석되었다. 남성의 경우 노후에 대해 기대하는 비율이 15.4%, 걱정하는 비율이 50.4%인 반면 여성의 경우 노후에 대해 기대하는 비율이 12.4%, 걱정하는 비율이 5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노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고 걱정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 연령별 노후 걱정 정도



전체적으로 건강과 노후생활 비용 영역이 주요한 노후 걱정거리로 나타나는 가운데, 연령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남성의 경우 노후 걱정거리로 생활비용, 가족부양, 무위 등을 지적

표 2. 연령별 노후 걱정거리

구분	노후 걱정거리 (단위: %)								
	노후 생활비용	주택	건강상실	치매·중풍	무위	가족부양	기타	계	
연령	45~49세	36.9	2.0	37.5	10.4	7.9	3.1	2.3	100.0(355)
	50~54세	31.3	0.4	43.2	8.6	8.2	5.3	2.9	100.0(243)
	55~59세	31.4	1.7	41.8	8.4	8.8	5.0	2.9	100.0(239)
	60~64세	25.1	1.1	43.4	14.3	4.6	5.1	6.3	100.0(175)
전체	32.2(326)	1.4(14)	40.9(414)	10.2(103)	7.6(77)	4.4(45)	3.3(33)		100.0(1,012)

표 3. 성별 노후 걱정거리

구분		노후 생활비용	주택	건강상실	치매·중풍	무위	가족부양	기타	계
성	남	38.1	1.4	34.3	7.1	8.9	6.9	3.2	100.0(504)
	여	26.4	1.4	47.4	13.2	6.3	2.0	3.3	100.0(508)
전체		32.2(326)	1.4(14)	40.9(414)	10.2(103)	7.6(77)	4.4(45)	3.3(33)	100.0(1,012)

하는 반면, 여성은 건강상실, 치매 및 중풍 등 건강관련 요인들을 지적함으로써 성별 차이를 나타냈다. 남성과 여성의 노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통해 '남성-주소득자(male breadwinner)'와 '여성-돌봄노동제공자(caregiver)'로서의 성별 역할모델이 노후에 대한 인식으로도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영역별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실태

응답자들 가운데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적합한 시기가 30대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9.9%로 높게 나타났으며, 40대를 적합한 시기로 보는 비율 또한 28.4%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베이비붐 세대인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노후준비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학력, 직업, 소득 등 소위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았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는 일찍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

한 경향은 분야별 노후준비 실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1) 중장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분석 결과 중장년층 가운데 약 2/3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1/3은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또는 공적연금과 저축 가운데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비율이 16%, 세 가지가 23%, 네 가지 이상이 18%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복적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노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장년층의 준비는 다층적인 준비를 실천하는 계층과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는 계층 간에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학력, 소득수준, 및 직업계층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 준비의 양극화가 사회경제적 변인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중장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율과 준비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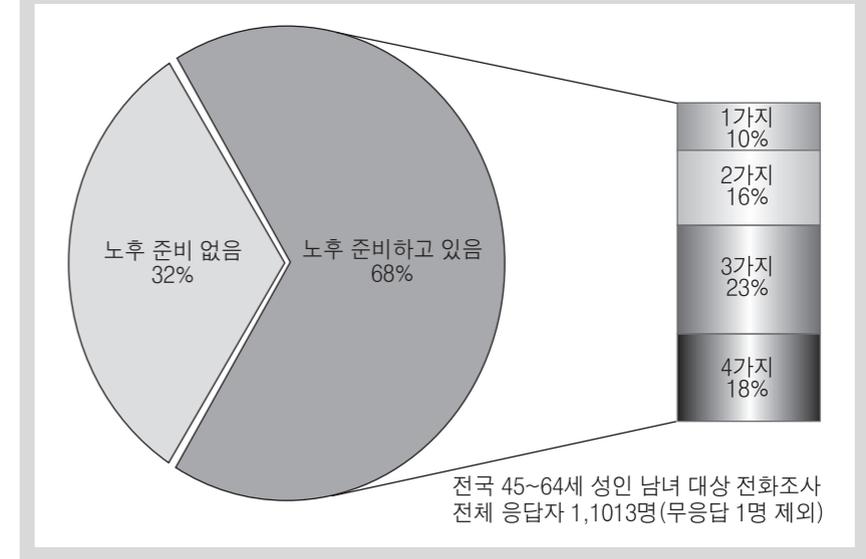


표 4. 학력·소득수준·직업별 노후 경제적 준비율

학력		소득수준(가구월수입)							직업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관리자·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 종사	농·임·어업	기능원·단순 노무직	주부 및 기타
55.1	71.2	78.1	34.6	51.6	69.5	75.1	84.1	91.8	76.6	84.4	69.3	62.7	56.6	65.0

2) 중장년층의 건강관리

앞서 제시되었듯, 중장년층의 노후 걱정거리의 1순위는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중장년층의 60.5%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운동(87.1%), 식생활관리(77.8%), 금연·금주(71.8%), 건강보조제(40.7%)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 소득수준, 직업 등 사회경제적 변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건강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학력, 직업의 변인에 따른 확연한 차이는 없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력·소득수준·직업별 노후의 건강준비

(단위: %)

구분		상당히 노력	약간 노력	보통	별로 노력하지 않음	전혀 노력하지 않음	계
학력	중졸이하	21.2	40.1	26.3	11.6	0.8	100.0(354)
	고졸	19	39.1	26.4	13.5	2.1	100.0(379)
	대졸이상	20.8	42.3	23.7	12.5	0.7	100.0(27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0.6	40.2	24.3	13.1	1.9	100.0(107)
	100~200만원	19.5	32.1	30.3	15.8	2.3	100.0(221)
	200~300만원	22.7	41.4	22.2	12.8	1	100.0(203)
	300~400만원	19.6	42.3	25.9	11.1	1.1	100.0(189)
	400~500만원	19.6	43.9	21.5	15	0	100.0(107)
직업	500만원 이상	20.1	44.7	25.2	8.8	1.3	100.0(159)
	관리자·전문직	20.3	41.8	23.4	13.3	1.3	100.0(158)
	사무직	17.2	50	21.9	10.9	0	100.0(64)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1.2	38.1	25.9	12.7	2.1	100.0(189)
	농·임·어업	28.4	31.3	20.9	17.9	1.5	100.0(67)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22.1	27.2	30.1	17.6	2.9	100.0(136)
주부 및 기타	18.3	45.3	26	10	0.5	100.0(400)	
계		20.2(205)	40.3(409)	25.5(259)	12.6(128)	1.3(13)	100.0(1,014)

3) 중장년층이 희망하는 노후활동 형태 및 준비

중장년층이 희망하는 노후활동 형태는 취미·여가활동(41.9%), 종교생활(15.7%), 자원봉사활동(13.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중장년층의 42%는 희망하는 노후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58%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50%가 자금부족을, 28.8%가 시간부족을, 9.8%가 구체적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8.5%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경제적 변인에 지위가 높을수록 노후활동

형태에 대한 준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노후 활동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가령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의 부족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 자금의 부족과 관심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러한 사실은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 관심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고, 노후활동에 대해 준비하고 생각할 기회가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노후활동 준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활동 준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준비를 하

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계층적 편차를 보였다. 고소득층은 시간 부족을, 저소득층은 자금부족을 지적했다. 한편, 중간소득 계층에서는 타계층에 비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중장년층의 은퇴 및 일에 대한 태도

중장년층의 은퇴 및 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국민의 다수는 61세 이후 현업에서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2.6%) 60세 이전에 은퇴를 희망하는 비율은 37.3%인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은퇴 이후 '전직과 관련된 일' 또는 '전혀 새로운 일'과 같이 신규 취업을 통한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은 각각 8.0%와 3.1%로서 낮게 나타나, 일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중장년층의 다수가 '늦은' 은퇴를 원하지만 사실상 은퇴한 이후에는 전직과 관련된 일, 또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늦은 퇴직과 퇴직 후의 일자리를 원하는 집단은 주로 노후준비가 부족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저소득, 저학력, 기능원·단순노무직 종사자와, 고소득, 고학력, 관리직 이상에

표 6. 학력·소득수준·직업별 노후활동 준비 및 미준비 이유

(단위: %)

구분	준비율	미준비 이유					미준비 이유 계	
		시간 부족	자금 부족	관심 없어서	구체적 방법 몰라서	기타		
학력	중졸이하	30.8	21.7	59.3	9.5	5.9	3.6	100.0(221)
	고졸	42.4	26.6	49.3	7.9	13.8	2.5	100.0(203)
	대졸이상	55.6	44.8	34.5	7.8	10.3	2.6	100.0(116)
가구월수입	100만원 미만	22.8	14.5	69.7	10.5	3.9	1.3	100.0(76)
	100~200만원	35.2	18	64.1	7	7.8	3.1	100.0(128)
	200~300만원	37.3	24.6	48.3	11	12.7	3.4	100.0(118)
	300~400만원	44.7	33.3	44.8	3.1	12.5	6.3	100.0(96)
	400~500만원	60.7	53.8	33.3	2.6	10.3	0	100.0(39)
직업	500만원 이상	54.1	53.5	21.1	15.5	8.5	1.4	100.0(71)
	관리자·전문직	56.3	59.1	30.3	4.5	3	3	100.0(66)
	사무직	46.9	44.1	47.1	5.9	2.9	0	100.0(34)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42	38.8	51.5	4.9	4.9	0	100.0(103)
	농·임·어업	40	20.6	52.9	17.6	5.9	2.9	100.0(34)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	30.6	19.8	64	9.3	4.7	2.3	100.0(86)
주부 및 기타	39.6	17.4	49.8	10	17.8	5	100.0(219)	
계	42	28.8	50	8.5	9.8	3	100.0(542)	

종사했던 사람들로서 계층적으로 양극단에 치우치는 “U자”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에 있어서 국민들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조사에 기반해 보다 표적화(targetting)된 노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5. 분석 결과의 함의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의 결과는 가까운 미래에 노인세대로 편입될 현 중장년층이 지금의 노인세대와는 달리 노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 실천을 실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장년층에서도 1/3은 여전히 경제적 노후준비와 건강준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과 독려를 필요로 한다. 특히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 준비정도가 학력, 직업, 소득 등 소위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계층적으로 표적화된 노후준비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요건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욕구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욕구를 수렴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노후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노후준비가 단지 ‘노후’에 초점이 두어져서는 안 되며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고찰 속에서 각 생애단계에서의 역할과 과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포괄적인 ‘생애설계’ 인프라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며 베이비붐세대인 현 중장년층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와 실천을 위한 노후준비프로그램의 확대 및 노후준비율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다각적으로 필요함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림 4. 학력·소득수준·직업별 은퇴 및 일에 대한 태도

